

Youngeun News

# 동행

8월

2024년 456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INNOVATE 영은, 혁신하다

## “더 잘 담겠습니다.”

억울할 때 있으시죠?

힘든적도 많으시죠?

외롭기도 할 겁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다 담을 수만 있다면……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고후 6:11~13) 

〈글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56호 / 2024. 8. 4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광일 장로

편집장 구자민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팀장 김창원 집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 2024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 CONTENTS

### 02 그림이 있는 풍경

“더 잘 담겠습니다.” / 서현이 기자

### 04 생명의 말씀

Innovate, 더 나은 의(5) / 이승구 담임목사

###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주일 말씀이 잘 안들려요(카테일 파티 효과) / 박대원 목사

### 08 동행

여성안수 30주년을 기념하며 / 김명실 목사 (영남신학대 교수)

### 10 웹진 동행

교사주일을 보내면서 / 차세원 통신원 (유아부)

계속되어야 할 전도의 사명 / 구현진 통신원 (꿈자람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며 살아갈래요 /

김미영 통신원 (유치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 이승훈 장로

### 14 선교지에서 온 소식

예수님의 때를 진실히 기다리며 / 구용희 · 백현이 선교사

### 16 영은소식

일본 대마도 단기선교팀 - 쓰쓰심(心) / 황주영 청년

‘구원구원 라파키즈’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며 /

아브라함반 유이서 엄마 김예원

라파 하나님과 함께 한 유아부 성경학교 / 차세원 교사

‘구원구원 라파키즈’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며 / 이진 교사

SOS! 유년부 라파 구조대 / 김라엘 학생 (유년부)

故 김경섭 은퇴장로 교회장(校會葬)

### 23 녹색교회 : 녹색계명

녹색 제6계명 : 녹색교육을 실시한다 / 장예은 (팀초록 팀장)

### 24 신앙의 유산

전도 노장(老將), 송준근 은퇴장로 <2> / 송준근 은퇴장로

### 26 본당 부분 리모델링 공사

### 28 교회안내

교육부 30년 근속 / 김철수 안수집사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Innovate, 더 나은 의(5)

(마태복음 5:43~48)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 바리새인의 가르침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마 5:43)

‘더 나은 의’를 추구하기 위한 다섯 번째 과정은 ‘원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레위기의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8)

본래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갚지 말고 사랑하라”는 명령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레위기의 말씀에 내포된 부담감을 감당하지 못했는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그 의미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네 몸과 같이’를 빠뜨린 채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해도 된다는 허용으로 간주했습니다.

### ■ 예수님의 재해석

그러나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마 5:44)

구약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선한 이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적대시키고 괴롭히는 원수 이웃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집어서 나를 적대시키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원수사랑 명령을 표현한 동사는 헬라어 ‘아가파오’입니다. 나를 적대하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모욕과 수치를 주고, 배신감을 안기며, 이유 없이 깎아 내리고, 늘 하는 일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명령이다. 기도하는 매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원수들에게 가고, 그의 편이 되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한다.”

마음 속에 원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위해 기도하려 한다면 원수 사랑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결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에게 사랑으로 되갚아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짧은 문장이라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문을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본 회퍼의 말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의 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을 것 같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증오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통해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 2)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 5:46~47)

유대인들은 세리가 로마와 해롯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했기에 창기와 마창가지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방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친구를 존중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자기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에게만 제한된 사랑은 세상이 기대하고 실천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더 나은 의’를 추구하기 위해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본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보냅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기 이익’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라고 부추깁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를 내 이익에 근거해 평가함으로써 나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과 사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강화되면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상만을 골라서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취향입니다.

다. 사랑과 취향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취향으로 이해한다면, 나의 취향에 맞는 존재가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를 향한 좋은 감정이 없다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 내게 찾아온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상대방에게 가치를 두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제대로 주목함으로써 사랑의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 3)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온전함’은 ‘목표에 도달함’ 또는 ‘성숙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은 ‘완전함’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온전함’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라’로 번역된 단어는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능동태로써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그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원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 12:14)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상대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원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 ■ 더 나은 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원수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바라셨습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며,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온전함에 이르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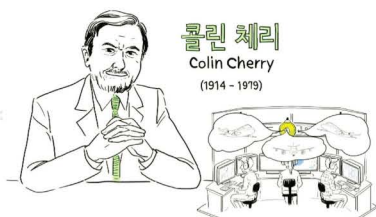
## 주일 말씀이 잘 안들려요(칵테일 파티 효과)



글 | 박대원 목사

참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내가 원하는 소리는 쑥쑥 들립니다. 인지심리학자인 콜린 체리 박사는 1953년 영국공항의 관제탑에서 하나의 확성기를 통해 동시에 여러 명의 비행사들의 보고가 들어오게 되는데 항공 관제사들이 어떻게 보고 내용을 알아듣는지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스피커에서 동시에 두 명의 목소리, 혹은 그 이상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관제사들의 대부분은 특정 소리 하나만 집중해서 듣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의 톤과 속도, 말하는 사람의 성별 등에 따라 상대방의 메시지를 잡아내는 것도 달라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정 직업군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속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할 때,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혹은 희미하게 들리는 자기 이름에 우리는 곧잘 반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내가 관심 있는 것 외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콜린 체리 박사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 불렀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에서 졸다가도 자기가 내릴 역의 안내 방송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것, 이게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이런 칵테일 파티 효과는 우리 신앙에서도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투자종목 이야기,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 다른 사람의 뒷 이야기에 기가 막히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들리는 주제, 그것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집중하고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 한 구절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더욱 많이 사모하시고 더욱 말씀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관심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세요.

내 마음의 주제를 세상의 가치에서 영원한 하늘의 가치로 바꾸시는 영은의 모든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 여성안수 30주년을 기념하며



글 | **김명실** 목사 (영남신학대 교수)



여교역자회 성찬성례전

2024년 6월 17~19일,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된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2022년에 새롭게 출판된 본 교단의 『예배·예식서』의 성찬예전 부분을 강의하고 저녁예배에서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전국여교역자연합회는 예장통합 여성목회자의 친교와 연대, 계속 교육과 훈련을 돕는 연합기관인데, 매년 6월에 총회로 모입니다. 강사였던 저도 선·후배 목사님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교단이 여성안수를 허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 더 큰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 ■ 여성목사 안수는 역사적 사건

여성안수가 허락된 것은 1994년도였고, 그 이듬해인 1995년에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여성들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고, 합격자 중에 오

랫동안 단독목회나 선교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먼저 안수를 받았습니다. 1996년 가을, 전국에서 19명의 여성목사가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후에 모두 남대문 교회에 모여 함께 감사예배를 드릴 정도로 여성안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고 여성도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었던 1996년, 저도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역사적인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99년 봄노회에 영등포노회 2호 여성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여성목회자들 앞에 놓인 장애와 과제는 지금도 여전하지만, 여성안수라는 역사적 결단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까지 목사요 신학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국여교역자회 총회를 통해 여성목회자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아도 교인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사랑과 덕’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많은 목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크게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 ■ 여성장로 선출은 여전한 문제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성안수 30주년을 기념하며 불편한 마음도 함께 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최근 지역교회의 여성장로 선출이 여성안수를 처음 시작했던 때보다 더 어렵고 드물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성목사는 신학교에 입학하여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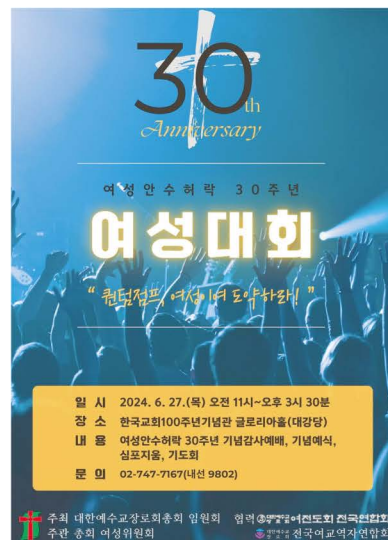
정 기간 교육을 받고 목사고시에 합격한다면 여러 기회가 열리고 안수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선출은 조직교회에서 일어나야 하고, 회중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되기에 무한경쟁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여성이 선택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장로로 선출되기 어려운 것은 여성 개인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은 지교회 차원에서 다룰 문제들이 아니라 총회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들이기에 여기서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 ■ 여성장로 선출을 위한 여성 할당제 도입

여기서는 해결방안 중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직접 후보로 나선다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간혹 당회가 후보자들을 직접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남성 후보만 선택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로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의식·무의식 중에 남성후보자를 선호할 확률이 높습니다. 장로교는 만인제사장으로서의 세례교인들을 위한 대의정체에 기초한 개신교 교파입니다. 장로교는 선택된 장로들이 교인들의 목소리를 당회에 전달하고 목회자와 소통하며 함께 신앙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제도입니다. 2021년 총회에 보고된 통계에 따르면 본교단 교인의 57.48%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당회에 전달할 여성장로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직접 후보로 나서든지 당회나 제직회가 후보를 선택하든지 아직까지 남성 중심의 유교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통해 여성 리더십을 보완해주어야 합니다. 여전도회연합회에서는 남성장로만 반복적으로 선출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

비례대표제’와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이나 ‘진정한 평등’은 출발점에 약간의 차이를 두더라도 모두에게 기회를 주자는 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성장로의 선출은 양성평등의 가시적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성안수 30주년 기념행사는 여성안수 허락부터 여성목사 안수까지의 3년 과정을 기념하며 2026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에 만든 새 역사가 미래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계속 닦고 확장해나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등포노회는 1987년에 교단총회에 여성안수를 청원했던 7개 노회 중 하나입니다. 여성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냈던 영등포노회의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인 영은교회에서도 그러한 행보가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 차세원 통신원(유아부)

## 교사주일을 보내면서 - 유아부 선생님들은 감동입니다 -

영은교회 유아부는 현재 재적 29명의 선생님들과 2명의 스태프가 있습니다. 24년 상반기와 여름성경학교를 보낸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선생님들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꼭 있어야 할 그러나 가장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주시며 청소를 도와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감동입니다.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보조교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참 귀합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각자 맡은 일을 위해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점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청년부로 가기 바쁘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늘 웃음으로 겸손하게 청년의 패기를 보여줍니다.

우리 유아부에는 오랫동안 섬겨 오신 어른(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경험 많아서 젊은 사람들

이 하는 일이 탐탁지 않고 불만이 있을 법도 하신데 늘 웃음으로 응원해주시고 수고한다고 토닥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임원선생님들... 4-5세 아이들은 오감을 통한 성경공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주 가위질과 풀칠을 합니다. 임원선생님들은 매주 4~5시가 되어야 끝이 나도 즐겁게(?) 일합니다.

전도사님은 영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고민하며 우리 선생님들 가장 아래에서 뿌리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예리야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교육부가 하나님의 지도 안에서 잘 따라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육행정실의 차재협 장로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물심양면의 도움 덕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교사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글 | 구현진 통신원(꿈자람부)

## 계속되어야 할 전도의 사명

교육1부 전체가 “전도 디다케(예수님이 명하신 전도를 가르치고 배움)”를 계획함으로 꿈자람부는 한 달 동안 **【All About Love】**라는 주제를 정하여 사랑하는 영은의 자녀들과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8) 말씀을 주제 삼아, 1주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2주차 하나님을 사랑하기, 3주차 스스로를 사랑하기, 4주차 이웃 사랑하기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생활 실천표 작성을 하며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삶으로 이어지도록 힘썼습니다.

활동1~3주차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 필사와 큰소리로 외치는 활동과 하나님을 사랑하기와 나를 사랑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주어진 표에 스스로 작성하여서 한 주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활동 4주차에는 이웃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자신이 모은 달란트로 이웃에게 나눌 마음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상반기 달란트 잔치를 열었습니다. 5주차는 한 달의 **【All About Love】** 마무리 활동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 서약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였습니다.

꿈자람부는 이어지는 여름 사역으로 전도의 사명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도 함께 하기위해 이에리야 목사님과 **【만나데이】**가정 심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활동에 적합한 '센싱 더 스토리'로 전도의 말씀을 준비하여 자녀와 그 가정, 또 초청된 이웃에게 전하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 더 많은 교회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의 웹진 동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 김미영 통신원 (유치부)

##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며 살아갈래요

- 영은 유치부 '초록지킴이' 활동 -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잘 돌보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파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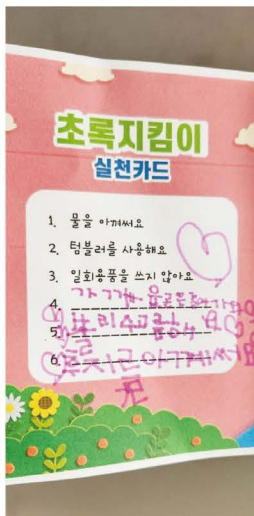
이 세상은 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돌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은 유치부에서는 6월 셋째주부터 한달 간 '영은, 혁신하다'라는 표어에 맞추어 '초록지킴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은 초록지킴이 실천카드에 각 가정에서 지킬수 있는 실천내용을 적고,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긴 후 사진을 찍고 활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치부 전수현 목사님은 “혁신하는 유치부'는 '초록지킴이' 활동을 통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돌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함으로써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라며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면” 권면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는 유치부 초록 지킴이 친구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 제50회 전국장로수련회 —



글 | 이승훈 장로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경주 케이호텔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롬 13:10)란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회 주최 제50회 전국장로수련회가 있었다. 영은교회에서는 8명의 은퇴장로와 4명의 시무장로가 참석하였다. 전국장로수련회에서는 4천여 명의 장로들이 참석하여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였다. 또한 각자 섬기는 교회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먼저 귀한 수련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장로수련회의 주요 내용은 한국교회의 위기에 관한 것이었다. 첫 번째 특강은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본으로>라는 주제의 말씀이 있었다. 정상에 선 이들이 그러하듯, 신앙 역시 기본을 강하게 지키고, 기초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다. 세상의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야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특강은 사람에게서는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 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세 번째 특강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일터 영성’에 대해 들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터는 곧 기독교 사역의 현장이기도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일로 인식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네 번째 특강에서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라는 표어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네 번째 특강에 함께 한 기독교방송인 CBS는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인구 전략기획부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저출산 시대에 대책을 세우는 공익방송의 역할과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방송사로 거듭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특강과 훈련을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감동과 도전의 시간이 됐다. 이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마치기까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 예수님의 때를 진실히 기다리며

— 쿠칭에서 —



글 | 구용회 선교사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Demikianlah halnya dengan kamu: Sekarang  
kamu susah hati, tetapi Aku akan berjumpa  
lagi dengan kamu. hati kamu akan dipenuhi  
kegembiraan yang tidak dapat diambil oleh  
sesiapa pun. (Yohanes 16:22)



### 1. Story of GOD in Kuching

그리운 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담임 목사님의 방문도 저희  
가정에게는 그리움 후에 얻게 된 큰 행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쿠칭까진 13시간이 넘게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임을 알기에 이번 방문이 얼마나 큰 결정이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고 출구

에서 목사님을 뵈니 더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생각하고 그리워했는데, 눈앞에서 목사님  
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곳이 영은교회가 된 듯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 아내도 아이들도 종일  
목사님들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머무셨던 숙소를 지날  
때면 목사님이 계셨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식당에  
가면 함께 앉았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간 적  
응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많은 감정과 생각을 깊  
이 묶어 두었는데,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 그리움 상자  
가 열려버린 것 같습니다.^^ 서울로 떠나시는 날,  
잘 지내다 다시 보자던 목사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남  
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날 날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헤어지  
는 것 같이 근심이 되지만, 곧 다시 만나게 될 것과 그  
때엔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  
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꿈같은 선물이며 참 기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를 상상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게 됩  
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꿈같은 선물을 주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4년 6월 사라왁 쿠칭에서

## 2. 기도제목

- 1) 지난 1년에 감사하고 주어질 1년에 기대할 수 있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현지 동역자들을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저희 가정이 지속적으로 섬길 현지 마을과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4)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상황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6월 소식

### 1) 사마라한 청년 기도모임

6월 사마라한 청년 기도모임이 8일, TSM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영성 세미나가 오전에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영성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나눠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모임은 저녁에 있었으며, 찬양과 말씀, 그룹 기도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매주 마주하며 조금씩 친분이 쌓이는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청년들 중 함께 할 좋은 동역자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2) 담임 목사님 방문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승구 담임 목사님과 정성훈 목사님의 쿠칭 방문이 있었습니다. 쿠칭 도착 후

저희 가정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며, 19일은 선교사 가정 예배와 영은센터 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통합측 선교사님들과 식사하며 교제하였습니다.

꿈과 같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선물이 되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영은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답가주신 김치와 세밀히 준비해주신 약품, 영은교회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선물들을 보며 참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3) 통합 선교사회 식사

19일, 통합교단 파송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방문으로 그간 사역으로 바쁘게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모두 모여 위로를 얻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4) TSM 교회

매주 수요일 TSM 교회 수요기도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현지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마음에 담기는 찬양의 가사와 들리는 말씀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영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글 | 황주영 청년

## 일본 대마도 단기선교팀 - 쓰심(心)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딤후 6:15)

2024년 여름, 영은 청년부 일본 대마도(쓰시마) 단기선교팀 <쓰심(心)>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5박 6일(6/30~7/5)의 단기선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이찬양 목사님, 박희자 권사님을 포함한 영은 청년부 총 18명이 함께한 단기선교였다.

박영철, 김강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대마도에서 선교사님을 도와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을 진행했다. 찬양인도를 맡은 주세훈 간사를 포함하여 예배 전 경배와 찬양을 일본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팀, 전반



적인 조리를 담당한 양준혁 형제를 포함하여 한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현지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나눔을 한 한식 사역팀, 헤어 디자이너인 여다해 자매를 필두로 일본 현지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일본인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용 사역, 쓰레기 해변이라 불리

는 해변의 쓰레기들을 직접 치우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여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해변 청소 사역, 전체 진행을 맡았던 김승준 형제를 포함하여 현지 사람들과 일본어로 직접 소통하고 즐겼던 레크레이션 및 교제 사역팀, 선교사님의 전도 대상자인 주부 배구단과 함께 운동하고 교제했던 배구 사역, 주 안에서 자유한 우리를 표현한 워십, 오직 구원은 예수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뜻이 담긴 스킷 드라마 등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사역들을 올해 초부터 꾸준히 준비했고 모든 사역을 선교지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쓰심(心)>팀 18명 모두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선교 준비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청년 중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선교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선교와 다르지만 틀리지는 않다. 이전에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파발충으로 주었던 선교였다면 이번 선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중하고 정확했던 저격충과 같은 선교였다. 그리고 우리는 큰일

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몫의 벽돌 한 장 올리고 왔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음과 들을 수 있음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

더하여 공동체의 소중함과 사랑에 대해 느꼈다. 새로 정착한 교회에서 처음 가는 선교였고, 팀장으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번 <쓰심(心)>팀에는 선교를 처음 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다. 우리 각자 다른 18명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덥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사랑을 전하러 간 그곳에서 사랑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선교팀의 이름<쓰심(心)>처럼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필요한 곳에 은사로 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날들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모든 곳들에서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 끝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했던 <쓰심(心)>팀 팀원들에게,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쓰심(心)>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 ‘구원구원 라파키즈’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며

- 7. 6~7. 7 -



글 | 아브라함반 유이서 엄마 김예원

제게 여름성경학교란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어릴 적 달란트를 모아 예쁜 스티커를 사고 떡볶이를 사 먹었던 달란트 시장과 찬양하고 율동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학교가 참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성경학교를 아이 덕에 다시 경험하게 된다니.... 성경학교 단체 티를 아이에게 입혀주며 제가 더 설레었습니다.

영아부실에 들어가기 전 자동차와 풍선으로 예쁘게 꾸며주신 포토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찍자 아이도 오늘은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신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아부실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장난감, 미끄럼틀, 볼풀장까지....

부모님들과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고민을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아이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공동체임을 느끼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율동 시간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는 찬양 율동을 너무 좋아해 집에서도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다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집안일을 하며 성경학교 주제 찬양인 ‘라파 키즈’를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것이 저의 일상에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최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수족구가 유행해서 걱정이었는데,

찬양 중에 그 생각이 나 아픈 아이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잠깐 고쳐주심을 굳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주제로 한 전도사님의 열정 넘치고 흡인력 있는 예배와 아빠들의 멋진 연극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서학습 후 특별활동 시간은 아이들이 가장 신나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는 병원 놀이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놀이, 여러 가지 촉감을 느끼며 걷기 놀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낚시 놀이까지. 아이들의 행복해하는 모습과 동시에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신 영아부 선생님들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우리 예수님은 뭐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차세원 교사

## 라파 하나님과 함께 한 유아부 성경학교

- 7. 6~7. 7 -

“9191, 라파키즈”라는 주제로 2024년 7월 6일 (토)~7일(주일) 까지 이틀 동안 31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였다. 성경학교가 시작하기 전부터 선생님들은 한 달 동안 매일 릴레이 기도를 하였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20일 기도 책자를 통해서 매일 기도하며 성경학교를 준비하였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라파(치료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찬양과 예배를 일상화해 왔다. 이번 성경학교는 전도 디다케(가르침)가 함께 진행되었기에 하나님께 치료받고 회복된 우리 아이들이 치료자가 되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주에 걸쳐 초대장과 선물을 매주 전달해 주었다. 덕분에 이번 성경학교에 새로 온 친구 3명이 참여하여 함께 나누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믿는다.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대그룹 활동은 <라파키즈 탐험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장애물 통과하기를 하였고, 소그룹활동으로는 <라파키즈! 믿음의 발걸음>으로 발도장을 찍고 마지막에는 선생님들이 세족식까지 진행하였다. 그리고 주일에는 치료받은 아이들이 <라파키즈가 되어요>라는 시간을 통해서 직접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놀이를 진행하였다. 고등부 전도사님을 비롯해 선생님이 환자로 참여해주어서 아이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번에 특별히 주제곡을 열심히 부르며 율동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이 참 사랑스러웠다. 우리 아이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언제나 치료자 하나님을 찾고 또 치료자가 되어 하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길 기도한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좋다~”라는 느낌을 받고, 좋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의지하며,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엄청 많이 기대하고 가장 손꼽아 기다렸던 물놀이 시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신나게 마음껏 즐겼다. 계속되는 장마와 비 소식에 마음을 졸였지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집중 할 수 있어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결론은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셔서 감동이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최고! 



## ‘구원구원 라파키즈’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며

- 7. 13~7. 14 -



글 | 이 진 교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9191 라파키즈’라는 주제로 7월 13, 14일 양일간에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성경학교는 한달전부터 교사와 부모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여 더 은혜로웠습니다.

유치부 선생님, 친구들이 모두 목소리 높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라파키즈 복장으로 변신한 선생님들과 ‘9191’이 새겨져 있는 허리띠를 맨 유치부 친구들이 함께 라파키즈로 변신하여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9191 라파키즈! 설교에 아이들은 초집중하며 목사의 설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꼭 넣고 4개의 코너학습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지치지 않고 엄청난 에너지로 활동에 잘 임했습니다.

직접 꾸민 청진기와 가운을 입고 병자도 고쳐보고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약’도 만들어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구호도 외치며 어려운 터널과 허들과 여러 난관을 통과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미션을 완수하며 세상의 라파키즈 ‘특공대’로 변신하였습니다.

오전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점심도 스스로 잘 먹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입니다.

라파키즈 찬양 축제 때는 유치부 친구들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며 아픈 마음이 있는 친구들을 ‘괜찮아 괜찮아’ 찬양으로 위로해 주는 시간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라파키즈 글씨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학교 중 우리 친구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다리던 물놀이!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맑은 날씨 가운데 친구들 감기 걱정 없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맛있는 수박과 감자를 먹으며 맑은 웃음을 보이는 유치부 친구들의 미소로 선생님들의 피곤함이 싹 달아납니다.

두 번째날 주일 예배는 특별히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유치부 예배당을 꽉 채워주셨고, 유치부 친구들은 그 어느때 보다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렸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때는 뜨겁게 예배하는 축제의 현상이었습니다.

예배 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서 함께 준비한 연극공연을 했는데 친구들이 정말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부모님들의 연기는 정말 엄지 척!이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 SOS! 유년부 라파 구조대

- 7. 26~7. 28 -



글 | 김라엘 학생 (유년부)

드디어 기다리던 여름성경학교다! 유년부 여름성경 학교 주제는 'SOS! 라파 구조대' 이다.

전도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며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첫날은 대그룹 활동으로 여리고 성 놀이를 했고 종이컵 불기, 종이컵 빙고,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가라사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간식으로는 닭강정과 주스를 먹었다.

그 다음날은 예배 후 세상을 치유하는 구급통을 만들었고 조별로 성경암송을 했다. 성경 구절을 외워야 점심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친구들과 열심히 외워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8층 옥상으로 물놀이를 하러 갔다.

모두 등에 종이를 붙이고 물총을 쏘면서 서로 종이를 떼려고 하는 놀이다. 물총놀이도 하면서 선생님들

이 나를 물속으로도 빠뜨리고 머리에 물도 붓고 너무 재미있었다. 계속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비가 쏟아져서 모두 천막에 들어가서 초코과자와 생수를 먹었는데 정말 꿀맛이었다. 비가 그쳐서 우리는 또 즐겁게 놀았다. 옷을 다 갈아입은 후 간식으로 맛있는 라면과 피자를 먹었다.

여름성경학교는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다. 다음 겨울 성경학교가 벌써 기다려진다. ^^ 



## 고(故) 김경섭 은퇴장로 교회장(敎會葬)



지난 7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 영은교회 비전홀에서 고(故)김경섭 은퇴장로의 교회장이 있었다. 고(故) 김경섭 은퇴장로는 1931년 8월 3일 황해도 수안군에서 태어나, 1962년 4월 김명화 권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태

선, 태화, 은주의 2남 1녀를 두었다. 고(故)김경섭 은퇴장로는 1963년 영은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여 1981년 4월 집사 안수를 받았고, 1990년 4월 22일 장로 장립 후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였으며, 2001년 12월 31일 장로직을 은퇴하신 후 은퇴장로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지난 2024년 7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다음은 이상의 은퇴장로의 조사이다.

### 조사(弔辭)

사랑하는 김경섭 장로님!

장로님께서는 영은교회를 가장 건전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늘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언제나 영은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중학교 국어교사로 교육계에도 몸담으셨던 시인교사였습니다. 황해도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장로님께서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고, 휴전 이듬해에 군에 입대하시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회고를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쓰시고 기뻐하실 장로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장로님께서는 장수의 복을 받고 향년 93년을 장수하시며 병원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사시다가 7월 25일 93회 생신을 잘 맞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으시기 전날에는 저녁 식사도 시간을 맞추어 잘 드셨으며, 다

음 날 아침 9시 20분에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음을 둘째 아드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칭찬하시며 그 품에 안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원로은퇴 장로실에서도 조용하시고 온화한 성품에 후배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모습들과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잊지 않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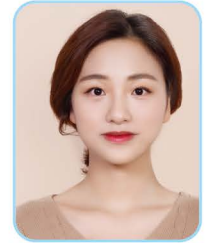
장로님과 함께 영은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것으로 조사를 마칩니다. 

주후 2003년 7월 30일  
은퇴장로 회장 이상의 은퇴장로

## 녹색 제6계명 : 녹색교육을 실시한다



글 | 장예은 (팀 초록 팀장)

기독교인으로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 우리 교회 성도 뿐 아니라 이웃하여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우리 집 강아지, 동네 길고양이, 가로수에 앉은 새와 매미마저도 말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고 있으면 지구 생명체들이 어떻게 되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돼 버린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필자는 또한 번 반성했다.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지 못해도, 단체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행진에 참여하지 못해도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 한 가지를 바꿔나가는 당신의 실천이 환경운동이다.

영은, 녹색 십계명에 따라 가정에서는 녹색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을 권면한다.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 숲속 자연을 탐방하며 우리 아이들이 잊고 있던 흙과 나무, 각종 곤충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또 생태 교육/자원 순환 교육 등을 통해 하늘의 새와 한강의 물고기들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돌고 도는지를 배울 수도 있다.

교회 차원에서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녹색 교육을 실시하고 녹색 캠페인을 진행하기를 요청한다. 현재 영은교회는 ‘그린멘토 특강’이라는 이름

으로 여름맞이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에 공개된 제1강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담임목사이자 기독교학과 조직신학 전공 교수인 장운재 교수의 강의로, 현재 900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영은의 성도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잊고 있던 것을 깨닫고, 모르는 것을 깨우쳐 작은 습관 한 가지를 바꿔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구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지구에 시계가 있다면, 정말 초침이 종말 끝까지 왔다. 90초가 남았다. 이제는 선택도 하지 못할 자정이 다가온다. 12시가 땡~ 하면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실 거라 기뻐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배운 대로 행동하는 영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 전도 노장(老將), 송준근 은퇴장로 <2>

- 전도는 생명운동입니다 -



글 | 송준근 은퇴장로

### ■ 영은교회 교인이 되다

송준근 장로님이 영은교회에 처음 온 것은 1982년이다. 장로님은 강서성결교회를 다니면서 영은교회 옆에 있는 한양연립을 샀다. 그곳에서 살면서 가까이 있는 영은교회에 등록하게 됐다. 장로님은 영은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재밌었다.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는 장로님 집이 사랑방이 되었다. 수요일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어김없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다. 김춘근 장로와故 이동국 장로, 황정선 안수집사(지금은 타교회 다님)다. 이 세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다.



송준근 장로(둘째 줄 좌로 세 번째)  
허정옥 권사(앞줄 우로 첫 번째)

장로님은 새가족부와 교육부, 선교부 등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1990년 4월 22일, 교회에 온 지 8년 만에 안수집사가 됐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96년에 장로에 임직되어 2001년까지 5년간 선교분과 위원장을 비롯

한 여러 부서에서 헌신했다. 향남동산과 설악영은교회 관리위원장직을 2년간 맡기도 했다. 그때 향남동산에는 100여 평의 주차장을 만들었고, 설악영은교회에는 20~30그루의 묘목을 심었다. 지금은 그 묘목들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 교회를 지키고 있다.

### ■ 평생의 사역이 된 전도

장로님에게 교회 봉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단연코 '전도'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와 세계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전도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해서 전도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사역이 '전도'라고 믿는 장로님의 고백이다.

송준근 장로님이 탁구장을 할 때 의형제 동생이 있었다. 그는 불교 정통파였다. 그의 부모와 다섯 형제가 다 불교 신자였고, 장로님의 친구가 그 집의 맏형이었다. 어느 날 송 장로님은 그를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복음을 전했다. 장로님이 아는 것만 얘기해도 복음이 스핀 지같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마침내 친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는 부모와 자녀를 다 전도했다. 이를 지켜본 장로님은 너무 기뻐고, 그때 전도에 자신을 얻게 됐다. 아무리 독실한 불교 신자여도, 전도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서 신우회를 통해 전도의 문

을 열게 됐다.



코스트코 앞 토요노방전도

### ■ 생명운동이 된 토요노방전도

송 장로님은 전도의 사명을 품고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다. 토요일마다 동역자들과 거리로 나가 전도했다. ‘토요노방전도’는 장로 은퇴 후에도 계속 이어갔다.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어느 날 장로님은 당산공원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다. 벤치에 앉아 있는 아저씨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했다. 그러자 그는 “뭐야, 너나 잘 믿어! 나는 예수 소리하는 사람을 보면 저주스러워!”라며 고함을 쳤다. 장로님은 그런 말에도 돌아서지 않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 빼고 얘기합시다. 인간적으로 선생님과 사귀고 싶습니다.”라며 명함을 건넸다. 그러자 그는 “나, 김용만이요.”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다. 그때부터 장로님은 김용만씨에게 매일 전화 하며 한 번만 만나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장로님의 정성에 못 이겨 김씨는 영은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아내와 같이 교회에 등록했다. 알고 보니 김씨 부인은 순복음교회 권사였다. 권사님이 남편을 따라 영은교회에 오게 된 것은 이전에 권사님을 교회 간다는 이유로 때리고 핍박하고 성경책을 불태우던 남편이 교회에 간다고 해 감동되어서였다. 부부는 한

동안 영은교회를 다니다가 이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이어갔다.

노방전도의 산증인이 또 한 명 있다. 당산공원에서 박형철 사장을 만나 복음을 제시했는데, 박 사장은 즉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했다. 이후 그는 영은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송 장로님은 35년 동안 문래역, 영등포구청, 코스트코 등 교회 주변을 돌며 노방전도에 힘써왔다. 93살의 노구의 몸에도 여전히 노방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



토요노방전도팀

장로님은 장수의 비결이 ‘전도’라고 말한다. “전도하러 나오기만 하면 힘이 생겨요.” 토요노방전도는 장로님의 전도에 대한 사명이 낳은 열매다. 故 이동국 장로를 비롯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토요노방전도의 동역자가 되었다. 송 장로님은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자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라고 강조한다. 장로님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전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일요노방, 화요노방, 토요노방 등 노방전도팀이 있다. 좀 더 많은 성도가 ‘밖으로 나가는 전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전도 노장(老將)’의 바람이다.

〈인터뷰 글 | 김명희 기자〉

## 본당 부분 리모델링 공사

2002년 본당 건축 및 입당 본당에 대해서는, 영상 음향 장비의 개선 이외에는 실내건축과 성전 기물 포함 예배환경의 정비 및 개선이 없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교인들의 구성도 변화여 2002년 건축 당시의 세대 이후 다음 세대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고, 예배를 위한 음향 영상 시스템도 발전해 오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예배가 활성화되는 등 교인들의 주거 환경은 지난 20여 년간 많이 개선됐음에 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은교회의 성전(본당 예배당) 환경은 20년 전 모습을 유지하고만 있습니다.

### 2024 innovate!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모든 정성을 다해 드리기 위해서 영은교회 본당의 예배환경도 혁신(innovate)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새롭게 꾸며지는 본당 예배실을 위해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가 함께 하길 부탁드립니다.

#### ■ 본당 부분 리모델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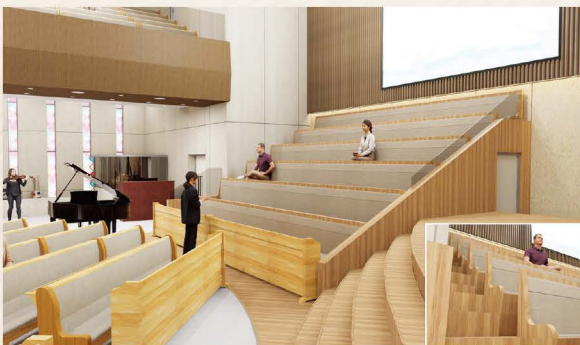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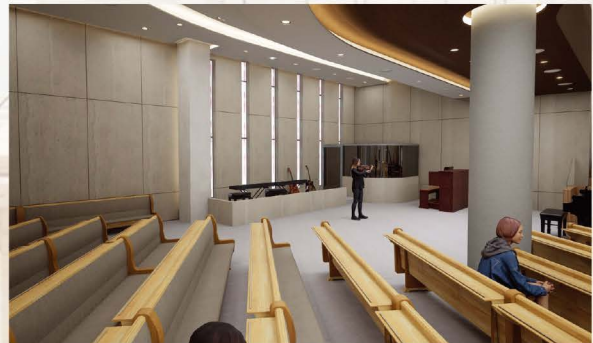
- 공사기간 : 7월 29일(월)~11월 초
- 공사기간 중 예배안내
  - 주일예배 : 1부 : 6층 체육관  
2부 : 6층 체육관, 1층 임시 예배실, 5층 권사실  
3부 : 6층 체육관, 1층 임시 예배실, 5층 권사실, 7층 식당  
4부 : 6층 체육관
  - 오후예배 : 6층 체육관
  - 주중예배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일야기도회) : 3층 비전홀

※ 공사 기간 중 점심 식사는 3부 예배 후 시작됩니다.

어르신 분들이 7층 식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 공사기간 중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위원회





2024 영은교회 교육부

#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일정

영아부 7/6(토)~7(주) 영아부실  
 유아부 7/6(토)~7(주) 유아부실  
 유치부 7/13(토)~14(주) 유치부실  
 유년부 7/26(금)~28(주) 유년부실

초등부 8/4(주)~7(수)  
 소년부 8/7(수)~10(토)  
 중등부 8/7(수)~10(토)  
 고등부 8/4(주)~7(수)

십자수  
기도원

청년1부 8/18(주)~20(화) 신덕수양관  
 청년2부 8/15(목)~17(토) 화양동관광농원

##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2. 성령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며, 악한 권세를 막아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허남기  
 담임목사 이승구  
 부목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육목사 전수현  
 전도사 장미애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김영락 김찬영 김희창  
 황예찬 손예지  
 파송선교사 구용희 백현이  
 협동목사 소병찬 김규리

##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 ▶ 영은교회 예배시간

| 구분      | 시간          | 장소          |
|---------|-------------|-------------|
| 주일예배    | 1부 오전 7:30  | 본당          |
|         | 2부 오전 9:00  |             |
|         | 3부 오전 11:00 |             |
|         | 4부 오후 1:30  |             |
| 오후예배    | 오후 3:30     | 본당          |
| 수요일예배   | 오후 7:30     | 본당          |
| 새벽기도회   | 매일 오전 5:30  | 본당          |
| 금요심야기도회 | 금요일 오후 8:30 | 본당          |
| 영아부     | 주일 오전 11:00 | 1층 영아부실     |
| 유아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2층     |
| 유치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2층     |
| 유년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5층     |
| 초등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5층     |
| 소년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5층     |
| 꿈자람부    | 주일 오후 1:30  | 비전센터 2층     |
| 중등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 고등부     | 주일 오전 9:00  |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 제자학교    | 주일 오전 10:00 |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 청년부     | 주일 오후 1:30  |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